

교실형 학생안전체험관 문 열다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안전체험교실 본격 운영

체험중심 안전교육으로 안전사고 대응능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3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안전체험교실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

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

회 강동화·윤수봉 의원과 이현규 전주학생교육문화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로써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교실형 안전체험관 5개소 조성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전주·군산·익산 학생교육문화관과 완주 꿈이공

발복초 등에 조성됐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직속기관에 설치된 교실형 안전체험관으로 유·초등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개방해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안전체험교실은 240㎡(약 72평) 공간에 4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재대피, 소화기 체험, 완강기 탈출, 지진체험, 응급처치 등 5가지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험 상황을 간접 체험하고, 사고 예방 및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특히 안전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내용에 기반해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안전체험교실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서거석 교육감 등 개관식 참석자들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혜와 상상의 나라’... 전주대 미네르바학부, 학술대회 성료

AI 기술 응용·스마트 공장 관리 등 미래지향적 주제 다뤄져

학생 작품·연구 결과 전시... 인공지능 뮤직비디오도 ‘호응’

전주대학교 미네르바학부는 지난 21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24 미네르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네르바학부 성인 학습자들이 실무와 학문을 결합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에서는 AI 기술 응용, 스마트 공장 관리, 도시철도 선 프로젝트 등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행사장 곳곳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과 연구 결과가 전시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실생활 문제 해결 아이디어는 관람객

들에게 큰 영감을 줬으며, 인공지능으로 만든 6편의 뮤직비디오는 청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서 뮤직비디오 'You will Shine Through the Night'를 발표한 김다나(2년) 학생은 "인공지능을 작품 창작에 적극 활용하면서 새로운 기술 과도 어느 정도 친숙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네르바학부 장현애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가 창의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려는 학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미네르바 학술대회는 우리 대학의 학문적 열정과 창의적 도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라며



전주대학교 미네르바학부는 지난 21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24 미네르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성인학습자들이 현장에서 얻은 지식과 다양한 연구 성과는 학문적 성취를 넘어 사회와 산업의 미래를 이끌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미네르바학부는 재직자와 성인학습자를 위한 특별한 학사제도를 운영, 31일부터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도내 A 초교 행정실 직원 사망 전북교육청 1층에 분향소 설치

서거석 교육감이 최근 발생한 도내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사망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층 현관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행정실 근무환경 점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전북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실 업무실태 조사 및 행정실 업무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지부는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많은 민원을 확인하고 검토한 바,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 행정실의 업무 폭증이 비극의 단초가 됐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북교육청의 부작위 또한 하나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교원들 “과도한 행정업무·지원 부족 문제 해결 필요”

전북교총,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유·초·중·고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인식 및 개선 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원들의 행정 업무 부담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와 지원 부족으로 인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유치원 보직교사 수 개정 및 인력 확충 △초등 늘봄학교 운영 체계 개선 △고교학점제와 AIDT(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도입 대비 지원 강화 △순회교사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시 근무 인력 확충을, 초등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행정 업무 분리 및 프로그램 질 향상을 요구했다. /장은성 기자

또한 고교학점제와 AIDT 도입에 대비해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매뉴얼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순회교사 제도에 대해서는 전일제 운영 검토를 촉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 업무로 인해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이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경감과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이해력 향상

전북교육청, 디지털교과서 학교 관리자 연수

도내 초등학교 교장·교감 등 400여명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전주그랜드힐스 호텔에서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AIDT(디지털교과서) 학교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AIDT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 이해 및 AIDT 활용 수업 지원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에

목적은 됐다. 연수는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전주비전대 직무 연계형 자격증 특별반 운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6~20일 일주일간 직무 연계형 자격증 특별반 'ACU Fusion'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자격증 특별반은 3D CAD/Fusion 자격증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 교육들로 구성됐다. 이에 전주비전대학교 신재생에너지과 재학생 19명이 참여해 자격증 시험에 응시, 19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전주그랜드힐스 호텔에서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AIDT(디지털교과서) 학교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혈액점도검사장비 기술력 인정

전북대 이동환 교수, 기술보증기금 2차 투자 유치



전북대학교 이동환 교수(공대 기계설계공학부·JBNU Star Fellow)가 최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차 투자를 유치하며 '혈액점도검사장비'의 기술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0년 교수 기술창업 이후 혈액점도검사기 연구개발에 매진해 혁신적인 기술을 구현하며 본인이 설립한 (주)바이오리올로지스를 통해 이 장비의 상용화에 성공했다. 세계 최초 개발된 혈액점도검사기는 유일한 전자종 다체널 혈액점도검사기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허가 후 한국보검심사평가원에 등재됐다. 지난 5월 미국 FDA로부터 장비 등록 허가를 받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앞서 2021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차 투자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 이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공동으

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해 2023년 약 20억 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해당 사업에서는 전북대 산학협력단,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등과 협력해 대학병원 및 수출용 전자종 혈액점도검사장비를 개발하고, 심혈관·뇌혈관·말초혈관 질환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기술보증기금의 2차 투자는 국내 시장 활성화와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술 창업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FDA 등록을 기반으로 수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수 기술창업이 기업공개(IPO)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바이오리올로지스는 전자종 다체널 혈액점도검사 장비를 국내 대형 혈액검사 수탁기관,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에 설치하며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찾아가는 전북학’ 인재양성 성과 특목

전북대, 전공 과목으로 기반 구축... 지역문화 전문가 양성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가 '찾아가는 전북학' 교육사업을 통해 인재양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북학연구센터가 전북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에 대한 연구 기반과 미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북 지역 대학에 정규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는 올해 전공선택 과목으로 '글로벌 전북의 삶과 문화'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매년 2학기에 개설되는 이 과목은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 문화인류학적 조사 연구방법을 교육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지역 사회문화를 분석해 결과를 추적해 나간다. 올해는 전북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재조명하고, 전북인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전통과 현대적 가치를 탐구했다. 이를 통해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전북의 생태와 지역사, △전북의 기록문화와 한지, △전주한옥 마을과 문화관광, △전북의 지역활성화 운동, △전북의 향토음식과 전통 쌀 문화 등 전북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된 폭넓은 영역을 조사했다. 고고문화인류학과 임경택 교수는 "그간 대학에서 '지역'을 다루는 인문학 수업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교과목이 개설돼 전북의 정체성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역학에 대한 실체적 연구를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에 맞선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쾌거"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BK21 동식을 위해요소 제어 그린바이오 인재양성 연구단이 최근 농축산식품산업 간담회를 통해 산학연 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농축산식품산업 산학연 협력 방안 모색

전북대 농생대 BK21 사업단, 7개 기업 참여 간담회 개최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BK21 동식을 위해요소 제어 그린바이오 인재양성 연구단이 최근 농축산식품산업 간담회를 통해 산학연 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주)팜더, 더올은협동조합, (주)달린, (주)카페이오, 농업회사법인 (주)참돛, 이스타바이오, 코리아소프트(주) 등 충남, 전북, 인천의 7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전북대 BK21 동식을 위해요소 제어 그린바이오 인재양성 사업단과 전북대 스마트팜학과, 식품공학과 교수진,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이 나서 해결 방안을 함께 의논했다. 간담회는 크게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기업들이 겪는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협력 가능성이 공유됐으며, 2부에서는 전북

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장화영, 김영숙 팀장이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정부지원 사업인 산학연Collabo R&D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의 현실적 방안을 제안했다. 이화교 연구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산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공의 교수진과 지역 기업들이 자주 교류하며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